

지역 포교 “주민과 함께” · 대학생 포교 “네트워크 활성화”

조계종 포교원 9, 10일
관련 간담회 · 회의 잇달아

광주 선덕사 · 시흥 대각사
사찰 도서관 활용 등 눈길
대학생 눈높이와 요구 부합
포교 콘텐츠 개발이 급선무



조계종 포교원이 7월 9일 주최한 대학생 포교 단체 간담회. 이날 단체들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공동체를 통한 지역 포교 활성화와 청년 불자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생 포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조계종 포교원 주 최로 잇달아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0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제3차 지역 공동체 포교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형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선덕사와 시흥 대각사의 지역사찰 포교 사례를 통해 사찰도서관 활용과 불교학당, 책놀이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선덕사 주지 원목 스님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운영 되고 있는 선덕사는 사찰 1층 공간을 도서 사찰 포교의 사령부로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았다”며

“종교가 지역과 호흡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원목 스님은 이어 “사찰에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덕사 측이 밝힌 사찰 내 작은도서관 건립 조건은 33㎡ 이상에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000권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포교원 측은 지역공동체 유형에 따라 사례를 정리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7월 9일에는 북한산생태탐방원수원에서 대학생 포교 유관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

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 총동문회, 군종특별교구, 파라미터 청소년연합회 등 6개 단체 관계자, 대불련 지방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 주제 네트워크 형성과 포교역량 결집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유관단체 간담회 운영, 대학생 포교를 전담하는 T/F 구성,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와 대불련 연계·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불련발전위원회 최승태 위원장은 “캠퍼스포교 주제는 있는가”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 대학생 포교의 현황을 짚었다. 특히 대학생 포교에 대한 개신교와의 역량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그에 따르면 개신교는 ‘챌린지 2020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명의 신입간사를 선발 후 이들을 선교사급 지도자로 양성해 국내 1000명, 해외 1000명씩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40억 원의 모연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면, 대불련의 지난해 여름 캠프에는 98명이 참가했고, 1980~1990년 200여 대학에서 활동하던 대불련이 지난해 70개로 줄었다.

최 위원장은 “대불련은 지난 50년 동안 자랑스런 역사를 이어왔다. 내우에는 양심의 보루가 됐고, 외환에는 호법 선봉이었다”면서 “이제 대불련이 변화와 혁신에 성공한다고 해도 대불련 힘만으로 캠퍼스포교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미래방향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재정과 인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목적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종단 차원의 캠퍼스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불자 포교를 수행할 수 있는 포교단체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호암미술관, 서산 돌미륵 반환하라”

서산불교계, 해미읍성 돌미륵 환수운동 벌여

서산 해미읍성의 동서남북 사방비보(四方裱補) 중 하나로 주민들 몰래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진 산수리 돌미륵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서산 17개 사찰 및 암자 주지 모임인 서산주지연합회(회장 도신)는 최근 연합회 모임을 갖고 해미면 산수리 마을 주민들이 미륵을 되찾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돌미륵은 현재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지만 미술관 측은 반입 증거를 불교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미륵 환수는 서산주지연합회 총무 허정 스님(천장사 주지)이 7월 12일 천장사 선지식 법회 후 참가 스님과 신도 10명과 함께 해미읍성 4방에 세워져 있는 미륵불을 순례하고 불자들을 대상으로 산수리 미륵 반환 및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향토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술관 측의 반발에 부딪혔다.

13일에는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공승법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설정 스님은 가야사지에서 수덕사 산하 80여 사찰 및 암자 스님과 신도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승법회’에서 “해미읍성 사방비보 중 하나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 주민들이 반환운동에 나선 만큼 불교계가 나서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산주지연합회 회장 도신 스님도 “주민들의 중언정취와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서산 지역 17개 사찰 뿐만 아니라 각 마을과 인근 지역의 불교계 또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산주지연합회 총무 허정 스님이 주민들과 해미읍성 인근 미륵불을 순례하고 있는 모습

사찰서 찬송했지만 ‘땅밟기’는 아니라고?

1년전 인도 마하보디사원 훼손 단체 인터뷰로 밝혀져

지난해 7월 한국 개신교계 청년들이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땅 밟기를 한 영상이 한국 비구니 스님에 의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파문 1년여 만에 당시 청년들의 소속 단체가 한국 선교 단체인 ‘인터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콥은 사건 초기부터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지만 계속 사실을 부인해왔다.

기독교계 방송인 CBS는 7월 8일자 보도를 통해 인터콥 소속 회원들이 마하보디 사원 땅밟기 파문을 은폐하려했던 정황을 공개했다.

CBS는 지난해 인터콥을 탈퇴했다는 의명의 제보자가 자신의 인터뷰 후배 A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어느 사람이 물어도 인터콥과 관련없다고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일이 우리 단체와 연관됐다고 알려지면 인터콥 단기선교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모든 것이 본부 지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A씨는 “불교사원에서 땅 밟기 기도를 했던 3명과 본부가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콥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를 부인해온 인터콥이 1년여 간 거

‘모르쇠’로 1년여 간 사건 은폐

개신교 언론에 제보 이어지자

결국 10일 공식 사과문 발표

‘유체이탈’ 화법 거짓 변명 일관

불교계에 공식 사과는 전무해

짓 해명을 해왔음이 밝혀졌고, 결국 7월 10일 밤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콥은 사과문에서도 진술한 참회 대신 변명으로 일관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심지어는 변명마저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고 부다가야를 불교관광지역으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인터콥은 사과문에서 “인도 마하보디사원은 불교관광지역으로 지난해 7월 경 청년들이 관광객 마하보디사원을 방문했고, 기타를 본 현지인들이 흥미를 느끼고 노래를 해볼 것을 요청해 한국어로 찬양을 했다”면서 “이후 한국 스님이 이의를 제기해 사과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동영상만 한국으로 보내져 ‘땅밟기’라고 지칭하며 타종교의 예배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년들은 단기선교 여행 중에 유명한 불교사원을 단순히 관광차원에서 들어갔고 타종교시설에 유해한 과격 활동을 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해당 청년들을 몰아세우거나 정죄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비구니 스님은 청년들에게 찬송을 중단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3명의 기독교 청년들은 “하느님이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선

교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결국 스님이 부다가야에서 벌인 일을 알리겠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

사과문 배포도 개신교계 언론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불교계 단체나 관련 언론에는 보내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만담 스님은 “인터콥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하고 사과의 견해를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잘못을 진술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축소와 변명으로 그친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사과문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조계종에 정식 공문으로 정중히 보냈어야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인터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콥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조계종에 신뢰성이 담보된 사과를 표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을 계기로 진실하고 배려와 존중심을 갖춘 종교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콥은 개신교 전도를 위한 초교파적 선교 단체로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등 40여 곳에 9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또한 국내 50개 지부, 해외 60개 지부에서 1000명여 선교 교육, 연구, 동원, 지원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재가불자, 간화선 단기 안거 참여하세요

선원수좌회, 9월부터 두 차례 개최

간화선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단기 안거가 열린다.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회(이하 선원수좌회)는 ‘간화선 단기안거’를 하안거 해체 후인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다. 선원수좌회의 단기 안거는 지난해 하안거 이후 두 번째이다.

선원수좌회의 올해 1차 단기안거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이며, 2차 단기안거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단기안거를 연다. 수행 장소는 수좌회의 양평 임시수련원이다. 1차 단기안거는 간화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

수좌회는 “간화선은 우리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는 수행

법”이라며 “하지만 간화선 수행이 안타깝게도 선행 수좌스님들의 전유물인 듯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반인들이 여법하게, 일상 속에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단기안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간화선 단기안거”는 하안거 해제 직후, 수좌스님들로부터 직접 수행법 지도를 받고, 제방 선원의 여러 어른스님들로부터 화두 간택과 그간의 수행을 점검 받을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 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회는 의료비 지원 등 수좌스님들을 위한 정정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단기안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수행을 지도한다. 신성민 기자

2천만 불자님들을 위한 불경 황금 수의!!

남이 보는 옷이 아닙니다.
온전히 불자님만을 위한 옷입니다.

고인에 대한종교적 배려와 존중이 동반된 국내 유일의 수의
부처님의 가피로 극량정도에 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사제품 주의요망 신고전화 010-3071-3658

불경(황금)수의는 안동삼베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디자인 특허 원단 이므로 특허 및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사전통보없이 법무사를 통한 민, 형사고발 및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신 고객분은
진품확인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확인전화 010-3071-3658

제조사 안동삼베닷컴 안동시 안기동 119번지
판매처 안동종교수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7(별나라타워 505호)

주문 및 상담
031) 595-1237 / 010-2778-1971

성분/대마100% 원사/중국 제조/한국(안동)

[특] 2,200,000원

[일반] 1,500,000원

악수, 버선, 도포(원삼)미, 면모에 불교경전을 황금글씨로 새겨 부처님께 믿고 의지함을 기원하였습니다.